

4·3특별법 개정안 논의 향방 주목

어제 국회 공청회서 전면 개정안 찬반 의견 수렴
 17·18일 법안소위 예정... 본격 심의 이뤄질지 촉각
 야당 "시간 쫓기지 말고 종합 논의 후에 결론내야"

제주 4·3특별법 전면 개정안에 대한 국회 공청회가 12일 마무리되면서 앞으로 개정안 논의 향방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공청회를 통해 개정안 전반에 대해 여야가 찬반 의견을 수렴한 만큼 앞으로 법안 심의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는 주문이 나오는 가운데 야당에서 추가 전면개정안 발의 필요성도 제기하고 나서 법안 심의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제1법안소위원회(위원장 한병도)는 12일 오전 10시부터 행정안전위원회 회의실에서 오영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주 4·3특별법 전부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는 국회법 제42조에 따라 제1법안소위 위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진술인으로는 이재승 건국대학교 법전문 교수, 양조훈 4·3평화재단 이사장, 현덕규 변호사, 양동운 4·3도민연대 대표 등 모두 4명이 참석했다.

이 교수는 현재 제출된 개정안에 대한 적극적 찬성과 그 근거를 역설한 반면, 현 변호사는 제주 4·3사건 정의 조항과 위원회의 위상과 역할, 진상조사의 내실화를 기할 수 있도록 조문의 수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양 이사장은 정의 조항과 보상규정에 대한 찬성의견을 피력함과 동시에 수형인에 대한 명예회복 조항

은 무효화가 여의치 않을 경우 일괄적인 직권재심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양동운 대표는 오영훈 의원안에 대해 적극적인 찬성 입장을 표명하면서, 미진한 진상조사를 추가로 강화할 수 있는 보완과 일반재판 수형인에 대한 명예회복 조항에 대한 적극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행안위제1소위 위원 전체가 참여한 질의응답에서는 대체적으로 제주 4·3사건의 비극을 치유하기 위한 법률 개정 방향에는 동의를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소속 권영세 의원은 군사재판의 무효화는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으므로 재심절차에 특례를 주는 방식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또한 같은 당 소속의 최준식 의원은 1인당 보상기준이 합리적인지 재검토를 요청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형석, 김민철 의원은 수형인에 대한 명예회복

조치도 무효화할 부분이 있으면 무효화하고 재심할 것은 재심할 수 있도록 길을 터주는 방식으로 입법을 추진하는 부분에 대한 의견을 피력했다.

공청회가 마무리됨에 따라, 17일과 18일에 예정되어 있는 법안소위에서 본격적으로는 법안심사가 진행될 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은 "여야가 이견을 서로 좁히려는 의지가 확인된 만큼, 여·야 합의 속에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한편 국민의힘 소속으로 제주 4·3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한 국민의힘 이병수 의원은 공청회 뒤 기자회견의 응답에서 "4·3특별법 개정안 논의는 서둘러야 하지만 시간에 쫓기지 말고 종합적으로 논의해서 결론을 내야 한다"며 추가 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 있다고 밝혔다.

국회=부미현기자 bu8385@ihalla.com

2021 한라일보 신춘문예
문학으로 새로운 봄날 그릴 신인을 찾습니다

한라일보가 12월 14일까지 2021년 신춘문예 작품을 공모합니다. 한라일보는 창간 이래 해마다 신춘문예를 공모해 패기있는 신인들을 배출해왔습니다. 시를 짓지 않는 문학으로 새로운 봄날의 기운을 전해줄 참신한 신인 작가를 찾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 모집 부문과 상금
 - 시: 당선작 1편, 상패와 고료 300만원(5편 이상)
 - 시조: 당선작 1편, 상패와 고료 300만원(5편 이상)
 - 단편소설: 당선작 1편, 상패와 고료 500만원(200자 원고지 기준 80장 안팎)
- 마감: 2020년 12월 14일(월)까지 (당일 도착분까지만 유효, 방문 접수 가능)
- 당선작 발표: 2021년 1월 1일자 한라일보 지면

[유의사항]

- 모든 응모작품은 미발표 창작품이어야 합니다.
- 같은 원고를 다른 일간지 신춘문예에 중복 투고하거나 표절된 경우 당선은 취소됩니다.
- 원고 첫 장과 맨 뒷장에 응모 부문, 주소, 성명(본명), 나이, 연락처(집, 휴대전화)를 기재해야 합니다. 봉투에는 '신춘문예 응모작'을 표기하고 응모 부문을 적어 주십시오.
- 경우에 따라 상금의 반액을 지급하는 가작을 뽑을 수 있습니다.
- 응모작은 돌려드리지 않습니다.

• 보낼곳: (63185) 제주시 서사로 154 한라일보사 4층 편집국 교육문화체육부 신춘문예 담당자
 • 문의: (064)750-2235

한라일보

내년 집중관리 감염병 코로나19 등 7종 선정

제주특별자치도는 코로나19를 포함해 7종의 감염병을 내년 집중관리 대상 감염병으로 선정했다고 12일 밝혔다.

도는 전국에 비해 높은 발생률을 보이는 감염병 1종으로 수두, 발생이 증가하는 감염병 1종은 A형간염을 선정했다. 또 해외유입에 의한 유행이 가능한 감염병 5종에는 에볼라바이러스, 코로나19, 중증호흡기증후군(MERS), 신종 인플루엔자, 뎅기열을 선정하고 이를 집중 관리할 방침이다.

지난해에 이어 전국과 제주에서 신고된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전수감시 법정감염병을 분석한 결과, 수



활짝 핀 국화꽃에 머무는 발길 12일 제주시 한림공원 국화축제 현장에서 사람들이 활짝 핀 국화꽃을 보며 즐거워하고 있다. 이상국기자

두는 제주에서 2019년 7월부터 2020년 6월까지 10만명당 발생률이 189.96명으로, 전년 대비 40.5% 수준으로 감소했지만 2005년 이후 지속적으로 높은 발생률을 보여 지난해와 동일하게 집중관리 감염병(가군)으로 선정됐다.

A형간염은 지난해 전국적인 유행

의 영향으로 도내에서도 발생건수가 2개년 연속 50% 이상 증가해, 발생이 증가하는 감염병(나군)으로 선정됐다.

또한 전 세계에 걸쳐 대유행이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를 해외에서 유입돼 유행될 가능성이 있는 감염병(다군)으로 추가해 강화된 방역태

세를 유지하기로 논의했다.

도는 집중관리 대상 감염병에 대한 예방 및 관리를 위해 주기적인 동향 분석을 통해 도민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개인예방수칙 생활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 활동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태윤기자 ty9456@ihalla.com

코로나19 피해 가장 심각한 분야는 '관광'

방역대책 도민인식조사 결과
 4명중 3명꼴 감염 위험 '낮다'

제주도민들은 코로나19 피해가 가장 심각한 분야로 관광산업을 꼽았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에 의뢰해 코로나19 대응 정책방향 등을 알아보기 위해 해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지난 10월 21~28일 실시한 '제주특별자치도 코로나19 방역대책 도민 인식조사 결과'를 12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전화면접 및 모바일 앱을 통해 시행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3.1% 포인트, 응답률은 18.1%이다.

코로나19로 인해 가장 심각한 피해를 입은 분야에 대해 조사한 결과, '관광산업'이 54.6%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서비스업(21.9%), 문화·예술분야(6.9%), 소매업(5.7%), 농·축산·임·수산업 등 1차산업(3.9%), 건설업(3.9%) 순으로 조사됐다.

도민들은 또 코로나19 감염 위험

에 대한 인식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인이나 같이 사는 가족이 코로나19에 감염될 가능성이 얼마나 높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제주도민 4명 중 3명(75.6%)이 '감염될 가능성이 낮다'(낮은 편 53.2%, 매우 낮은 22.4%)고 응답한 반면, 코로나19 감염 가능성이 높다는 답변은 도민 4명 중 1명인 18.3%(매우 높은 2.4%, 높은 편 15.9%)에 그쳤다.

코로나19가 학업, 직장, 생계, 여가 등 개인 생활 전반에 미친 피해가 얼마나 크다고 보느냐는 물음에는 '피해가 크다'는 응답이 63.3%(매우 큰 23.8%, 큰 편 39.5%)로 조사됐으며, '피해가 작다'는 응답은 33.5%(작은 편 28.3%, 매우 작은 5.2%)로 집계됐다.

지역에 따라서는 큰 차이가 없었으나 제주시 읍면단위 지역에서 '피해가 크다'는 응답의 비율이 65.0%로 다른 지역에 비해서 근소하게 높았고, 직업에 따라서는 자영업에서 '피해가 크다'는 응답의 비율이 73.9%로 가장 높게 나왔다.

이태윤기자

한림공원
국화축제
 Chrysanthemum Festival
11.6(금) - 11.29(일)
 장소: 한림공원, 산야초원 내 플라워가든